

윤정 미국 외교활동에 숨은 조력자 -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

윤정의 미국 외교활동과 자의반타의반 외유시 그림자처럼 보좌하며 수행해 온 인물이 있다.

바로 전 IOC 부위원장 김운용이다. “통역관이자, 사진사이자, 운전기사이자, 개인 비서처럼 일인사역을 맡았지” 그 사람은 육군 통역장교로 시작하여 1961년 내각수반 의전비서관, 외무장관 비서관을 거쳐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마침 윤정이 1962년부터 미국 공식방문과 자의반타의반 외유 등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공식, 비공식 주요 회담 통역과 일정 관리를 맡았다.



1964.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참관한 후 미국기자협회장 조지 켈렌과 기념 촬영하였다. 우측 김운용 참사관



하바드대학 방문을 마치고 캠퍼스에서 윤정 부부와 김운용참사관이 기념 촬영하였다.



김운용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지도자. 전 IOC 부위원장. 1986년 IOC 위원에 선출된 이후 세계적인 스포츠 지도자로 눈부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체육

회장,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으로 스포츠계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국제경기연맹GAISF 회장, 월드컵 게임 창설회장, IOC TV 라디오분과 위원장, IOC 집행위원 및 부위원장을 거친 국제 스포츠계의 입지전적인 리더다.

'88 서울 올림픽'과 '2002년 한 일 월드컵'의 극적인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의 주역이며, 주요 국제 대회를 잇달아 한국에 유치하는 등 한국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다. 1971년 대한태권도협회장에 취임한 후 국기원을 건립, 세계태권도연맹을 창설했으며 1994년 파리 IOC 총회에서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성사시켜 태권도의 세계화에도 앞장섰다.

대통령특사, 국제교류대사를 역임했고, 16대 국회에서 통일외교통상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게이오대학 법학부 방문교수, 명지대 및 조선대 석좌교수를 맡아 스포츠 후진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플루어 정유회사 밥 플루어회장과 조지 디이터부회장, 밴플리트장군과 만찬 장면



필스버그에 있는 걸프오일 회장 자택에 초청받아 만찬을 가졌다. 운정 왼쪽으로 장태화 전 서울신문사 사장, 김운용 참사관, 박영옥 여사의 모습이 보인다.



트루만 전대통령을 예방한 후 미주리공항에서 걸프 회장 일행과 기념촬영. 운정 오른쪽으로 박영옥여사와 김운용참사관 부인 박동숙여사.



걸프오일 초청으로 정유시설을 시찰하고 회사 간부들과 기념촬영. 가운데 걸프회장 부인, 왼쪽에 운정 부부와 오른쪽에 김운용부부, 뒤로 걸프 간부들.



캔사스주 석탄광에서 브루투스라는 초대형 굴착기 앞에서 걸프오일 간부들과 기념촬영. (p6 관련 사진)